

다중의 광장을 위한 모색

-소영현, 『광장과 젠더』, 갈무리, 2022

장은애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목차

- 1 성찰의 시간에 광장의 의미를 되묻다
- 2 감정을 통한 ‘문학’과 ‘사회’라는 오래된 구도의 탈구축
- 3 한국전쟁, IMF, 세월호, 한국 사회의 정동을 주조한 세 국면
- 4 젠더링(Gendering)을 통한 광장의 매핑(Mapping)
- 5 광장에서 바리이케트를 치우라!

1 성찰의 시간에 광장의 의미를 되묻다

광장에 대한 나의 실감이나 인식의 지평은 기대와 흥분으로 충만한 장밋빛 전망에 쉽게 공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광장의 시간이 사실상 저물었다고도 볼 수 있는 2022년 늦봄, 친구의 권유로 읽은 「스피커는 광장에서 촛불이 꺼지고 나서 들려온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발견한 “어쩌면 ‘광장’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작은 목소리들을 필연적으로 가려버리는 것이 아닐까”¹라는 질문이 광장에 대한 나의 입장이나 태도에 더 잘 부합한다.² 광장에 대한 환호와 긍정적인 평가에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광장을 위계가 없는 균질한 공간으로 상상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젠더, 계급,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광장의 스피커가 차별적으로 할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 글을 통해 나는 광장이 중심과 주변으로 끊임없이 분열하는 공간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광장이 평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장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타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타자들 간의 차이를 지우면서 집합적 주체로 호명하는 광장의 통치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광장의 촛불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광장을 채운 빛무리에 가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분명 광장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그림자의 형상을 좇는 성찰적 시선 또한 분명히 존재했었다.³ 그러

-
- 1 신현아, 「스피커는 광장에서 촛불이 꺼지고 나서 들려온다」, 『문학 3』 제2호, 창비, 2017. 05.29., 52-65쪽.
 - 2 여기서 ‘광장의 시간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판단이 단순히 정권이 보수정권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장의 유산이라고 여겨질 만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부정되었던 여러 현실—이태원 참사, SPC 평택 공장 끼임 사고, 전장연 시위에 대한 냉소와 냉대 등—을 고려할 때 광장의 시간이 저물었다는 서술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 2017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 등 문단 내부의 자성을 요청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창비를 비롯해 여러 잡지들이 쇄신을 목표로 기존과는 ‘다른’을 표방한 잡지들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창비에서 발간한 『문학 3』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_____은 광장에서 _____했다’라는 제목으로 꾸러진 『문학 3』 제2호의 <주목>란은 여성, 청소년, 깃발, 법, 스피커, 정치적 올바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광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돋보이는 글들이 수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 이러한 노력이 뚜렷한 대안을 남기지 못한 현시점에서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와 함께, 그럼에도 광장에 입장할 수 없었던 목소리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⁴는 주장은 여전히 호소력이 있다.

하지만 문제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채 음미하기도 전에 몰아친 백래시(Backlash) 속에서 광장의 시간은 뚜렷한 유산을 남기지 못했고, 광장의 의미 또한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포스트 광장의 시간은 이처럼 광장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로 광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광장 이후 드리운 패배감에 압도되어 비판적 사고를 전개하지 못하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 이후를 구상하기 위한 실천과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광장 이후를 구상한다는 기획이 광장을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진 형상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회이고 현실이며 삶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투쟁의 장”⁵인 광장 내부의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다양한 힘들의 흐름에 주목”⁶함으로써 광장에 대한 상상력을 확대,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연구’라는 방법을 통해 광장 이후 도래할 새로운 공동체를 사유하고자 하는 소영현의 『광장과 젠더』⁷는 어느덧 선선해진 가을 날씨만큼이나 반갑다.

2 감정을 통한 ‘문학’과 ‘사회’라는 오래된 구도의 탈구축

세월호 참사, 신경숙 표절 사태,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 신드롬, 사적 대화 무단 도용 논란 등 문학장 안팎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문학’과 ‘사회’라는 오래된 구도가 다시금 전면화

4 신현아, 위의 글, 57쪽.

5 소영현, 「저자 인터뷰」, 도서출판 갈무리, <https://galmuri.co.kr/product/321>(최종 검색일: 2023.08.20).

6 소영현, 위의 인터뷰.

7 소영현, 『광장과 젠더』, 갈무리, 2022(이하에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되었다. 1960년대의 ‘순수-참여’ 논쟁, 2000년대 초중반의 ‘리얼리즘/모더니즘’ 논쟁, 2000년을 전후로 한 ‘문학과 정치’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변주되었던 문학과 사회(현실/세계/정치)의 관계⁸가 새삼스레 문제가 된 배경에는 ‘문학성’에 기반하여 구축된 문학의 영역이 사회와의 접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가운데 문학의 하위 영역인 비평 또한 계토화되어 비판적 수행력을 잃었다는 ‘비평의 위기’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상은 소영현 또한 오랫동안 천착해 온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소영현의 시각은 문학과 사회를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가짜 구도’에 대한 비판적 개입으로 집약된다.⁹ 『광장과 젠더』 또한 이상의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축적된 그의 연구 및 비평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광장과 젠더』를 독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전 작업과 『광장과 젠더』를 잇는 연결고리는 ‘사회비평’이라는 개념이다. 소영현은 전작인 『올빼미의 숲』(문학과지성사, 2017)에서 사회비평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광장과 젠더』에서는 사회비평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감정연구에 천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영현이 말하는 사회비평이란 “비평의 실행적 작업을 두고 시대적 타당성을 따지는 일, 비평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비평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공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반복하는 일”¹⁰로서, 그에 따르면 비평은 이

8 소영현, 「비평의 미래—상상적 비평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제4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459-491쪽.

9 소영현은 이상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논구하였는데, 관련 저술로는 소영현, 「변해야 비평이다: 사회, 감성, 비평」, 『실천문학』 제115호, 실천문학, 2014, 198-212쪽; 「비평의 미래—상상적 비평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제4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459-491쪽; 「그나마 남은 비평의 작은 의무: 자본, 정념, 비평」, 『문학과사회』 2015년 봄호, 문학과지성사, 2015, 418-435쪽; 「비평의 공공성과 문학의 대중성」, 『실천문학』 제120호, 실천문학, 2015, 118-134쪽; 「비평의 공동체와 사회비평의 가능성—공적 상상력과 감성적 사유의 에토스」, 『문학과사회』 2014년 여름호, 문학과지성사, 2014, 518-540쪽; 「비평의 장소와 비평(가)의 임무: 사회인문학적 지평에서 ‘비평의 가능성’을 음미하기」, 『사회와철학』 제21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11, 177-206쪽 등이 있다.

10 소영현, 「변해야 비평이다: 사회, 감성, 비평」, 『실천문학』 제115호, 실천문학, 2014, 199쪽.

를 통해 비로소 비평다워진다. 비평의 문제설정과 비평의 가치 평가는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앞선 서술에서 비평의 역할이란 단순히 개별적인 문학작품의 미학성을 판별하는 작업이 아닌, “개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대한 사회 구조와 역사적 흐름을 포착하는 동시에 사회의 형성과 역사의 진보를 이끌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공헌을 놓치지 않는 틀을 마련”¹¹하는 것으로 재설정된다.

비평의 문제설정을 이상과 같이 설정한 시점에서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비평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의 탐색으로 옮겨 가는데,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감정연구라는 방법론을 둘러싼 본격적인 사유가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연구를 경유하여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분할과 대립이 아닌 연속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인식 및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되는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역사학, 문화학 그리고 문학 연구가 감정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의 ‘중간-매개’적 성격 때문이다. 주체의 것으로 표출되지만 감정은 (누군가의 것으로) 표출될 때에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감정으로 포착될 수 있으며, 인간과 인간 혹은 사물이나 세계 ‘사이’에서만 온전하게 ‘감정’이 될 수 있다. (10)

감정은 ‘사이’에 놓인 것이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 즉 ‘판단·행위’ 직전의 ‘판단·행위-가능성’이자 현실 직전의 현실, 아니 과거의 재편이자 은폐된 미래의 앞당겨진 현실화인 것이다. (11)

문학은 많은 경우 개별자의 내밀한 세계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표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사회적, 역사적 지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론적 배경에는 ‘사이’에서 유동하는 감정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소영현은 이처럼 ‘사이’를 횡단하는 운동성으로서의 감정의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비평을 문

11 소영현, 위의 논문, 203쪽.

학의 영역에 국한하는 협소한 시각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과 탐색”(22)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이 주장하는 바탕에는 감정은 사이에서 유동하는 운동성이 외화된 형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 “보이지 않으며 잡히지 않는 세계와 존재를 규정하고 또 변화시키는 ‘수행적’ 과정”(42)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자리한다. 그랬을 때 감정의 수행적 기능에 주목하는 소영현의 연구 시각에서 방점은 감정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닌, 감정의 움직임에 포착함으로써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감정을 통한 연구’ 쪽에 찍혀있다고 할 수 있다.

『광장과 젠더』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학장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학과 사회의 접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영현의 작업을 문학과 사회를 둘러싼 상상력의 개진이자 비판적 지성의 발현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음미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전쟁, IMF, 세월호, 한국 사회의 정동을 주조한 세 국면

『광장과 젠더』는 한국사회의 형질을 결정짓는 집합적 감정이 생성되었던 구체적 시공간을 살피면서 각각의 장면마다 생성된 집합 감정의 내용을 아카이빙한다. 그랬을 때 한국적 정동이 생성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세 국면은 각각 한국전쟁과 IMF, 세월호 사건으로, 각각의 시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속물성’이라는 대표적 정동을 내면화했다는 것이 소영현의 분석이다.

세 국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속물성이 어떠한 전개를 거쳐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정동으로 자리 잡았는지 고찰하는 소영현의 분석에서 제일 첫머리에 배치된 한국전쟁은 무엇보다 “사회의 불의에 무기력하고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개인의 등장을 촉진”(118)했던 사건으로 의미화한다. 그런데 저자가 지적했다시피 세속적 가치나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속물성은 근대 일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속물성은 전근대적 세계를 지배하던 신분제가 사라진 이후, 개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던 가치 체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롭게 출현한 근대의 평등 이데올로기 속에서 싹튼 새로운 주체의 존재 방식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해 보자면, 개인의 세속적 욕망이 팽창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후퇴한 가운데 공동체의 지평을 상실한 속물의 시대가 가속화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물질적 토대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기반과 사회적 가치들마저 파괴했다. 이러한 와중에 사람들의 삶의 지평은 생존과 보존의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저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공동체에 대한 전망은 실종되었다. 공동체에 관한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개인 과 개인의 확장체인 가족”(118)이었다. 나와 가족의 안위가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한국사회의 속물화 경향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식과 수치심의 상실로 드러났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발현되는 죄의식과 수치심이 사회적 지평을 구성하는 감수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죄의식과 수치심의 상실은 사회적 전망을 상실한 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된 현실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한국사회의 근간이 되는 물질적, 정신적 토대들을 파괴함으로써 기반을 상실한 주체들을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로 몰아낸 사건이었다면, 이후 적자생존, 각자도생이라는 생존 방식을 퍼트리며 등장한 IMF 사태는 사람들의 개별화와 고립화를 부추기는 사건이었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 질서를 내면화하는 한편으로, 부의 축적이나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한국전쟁을 통과한 이래로 한국사회의 두드러지는 정동적 경향은 입신출세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었다. 구시대를 떠받치던 신분적 질서가 무화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과 함께 대부분 사람들의 물질적 토대가 붕괴하면서 계급적 위계 또한 느슨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부추기기도 했는데, 현실에서 평등에 대한 열망은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으로 변형됐고 그러한 와중에 한국적 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신출세의 열망이 출현했다는 것이 소영현의 분석이다. 그런데 한국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신분 상승 기획은 사실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만 있을 뿐, 전쟁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조건이 하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신분 상승 모델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한국의 신분상승 열망은 주변을 모방하는 방

식으로 실현되었으며, 그 결과 경쟁이 과열되고 비슷비슷한 삶의 형태들이 양산되는 한국적 근대의 모습이 형성되었다.

한편 IMF 사태는 한국 사회를 글로벌리즘의 영향 아래 배치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단위의 국제 질서 내지는 경제 질서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전환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사회 성격은 점차 복합모순에 의한 복잡화 양상을 보였고, 한국사회의 대표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속물성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감정으로 전이, 분화, 분출되기 시작했다. 소영현은 감정의 흐름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정치,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출현한 정동적 순간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설명한다.

한국전쟁과 IMF 사태를 지나면서 누적된 정동적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다. 공동체 윤리의 기능부전으로 기억될 세월호 사건은 그간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모순들이 총체적으로 가시화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우리는 비참한 심정으로 공공의 가치가 부재한 자리를 경제적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적 목표가 대체하고 개별적 주체의 삶의 지평이 생존을 위한 투쟁 수준으로 후퇴한 현실과 대면해야 했다.

소영현의 성찰적 시선은 이처럼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모순들을 보아내는 한편으로,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개별자들의 위치가 “삶에 관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찰자이기만 한 것도 아닌, 즉 목격자—증인의 자리”(359)로 이동해 간 정황을 포착한다. 나아가 이상의 상황에서 문학의 역할이 “우리가 삶에 목격자—증인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일, 낮고 좁은 시야가 허락하는 최대한의 세계를 그려보려는 일, 그렇게 길을 내어 고통의 목소리인 집합감정을 보이고 들리게 하는 일”(365)에 있음을 짚어낸다. 이는 광장으로부터 파생된 ‘광장문학’의 윤리와 책임을 역설하는 것으로, 광장으로 향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에 담긴 정동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상에 대한 사유와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광장과 젠더』의 2, 3장에 해당하는 이상의 내용은 한국전쟁 이후 속물성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속성이 된 맥락을 추적하고, 이러한 속물성이 몇 번의 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동으로 분화한 사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계보학적 접근

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결코 갑작스러운 재난도, 우연한 사고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사회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모순이 임계치를 넘어 폭발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소영현의 성찰적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세월호를 애도해야만 한다는 목적의식이 사람들을 광장에 운집하게 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광장의 시간은 그동안 속물성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던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에 대한 요청이 드물게 우위를 드러낸 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광장에 대한 사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젠더링(Gendering)을 통한 광장의 매핑(Mapping)

이제 우리는 광장이 매끄러운 단면이 아님을 안다. 여러 사건을 통과하면서 광장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아닌,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면서 위계를 양산하는 기재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장이 정치투쟁의 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화합과 연대의 순간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쟁은 갈등과 긴장의 조정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정치투쟁의 장의 평화와 화합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충돌과 대립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소영현은 출판사와의 저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한다.

지금 이곳의 체제를 중지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자리가 광장이라면, 광장을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부의 집합감정입니다. 그런데 집합감정은 균질적인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다른 힘들의 충돌이자 공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장 내부에 서로 다른 집합감정의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 사이에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권력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광장 자체의 지향이나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광장에 대한 관심은 내부의 서로 다른 힘들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¹²

12 소영현, 위의 인터뷰.

대부분의 경우 광장은 하나의 거대한 빗무리로 재현되지만, 사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광장을 채운 것은 저마다의 존재감을 뽐내던 수많은 깃발들이었다. 다종다기한 정치적 입장과 삶의 지향 그리고 취향을 표출하던 깃발들의 향연으로 기억되는 광장의 모습은 광장의 정동이 단일한 아젠다로 수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소영현이 “모든 자리를 보장하는 일, 모든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일, 이것은 사실 아무런 갈등도 없거나 평화롭기만 한 상태는 아니겠지요. 수많은 갈등이 지속될 것이지만, 그러한 갈등이 사라지는 시공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¹³라고 언급했듯, 광장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고 광장에 대한 우리의 사유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더 머물렀어야 했다.

우리의 시선이 광장을 밝힌 촛불에 집중되는 동안 광장이 담지한 정치적 가능성은 체제 자체를 바꾸는 변혁의 계기로 기능하지 못한 채 법적 절차에 권한을 이양하는 형국으로 왜소화하였으며,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열망 또한 ‘시민’의 것으로 순치되어 체제 내부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소영현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라는 규정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던 소수자들의 자리와 촛불집회의 틀로서 포착할 수 없는 혹은 광장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를 지운다”(406)고 지적한다.

그런데 왜 젠더인가? 왜 젠더가 문제란 말인가? 책의 제목이기도 한 『광장과 젠더』에서 젠더에 할당된 의미의 영역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서사에 담기지 못한 ‘타자’들의 형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광장을 견인한 동력 중 하나가 여성을 향한 혐오의 정동이었음을 참담한 심경으로 목도하게 된다. 광장에서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종종 여성 혐오의 언어로 발화되었으며 권력자의 형상이 여성으로 재현될 때 여성을 향한 혐오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되었다. 이처럼 여성 혐오 발언이 권력에 대한 전복적 언어로 인식될 때 한국사회의 젠더 위계가 분명히 드러났음은 물론이다.

한편 광장의 통치술은 광장에 모인 여성들을 촛불소녀, 유모차부대 등 한정

13 소영현, 위의 인터뷰.

된 방식으로 호명함으로써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의 다양한 동기와 욕망을 납작하게 만들었고, 호명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구조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촛불시민’이라는 단일한 주체의 모습으로 현시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합적 층위로 위계화”(417)되어 있었던 광장에서 광장의 일원이 되지 못한 자들 앞에 놓인 현실은 다원적 공존이라는 위장된 수사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에 몰두한 채 ‘연대 없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소영현의 분석이다.

광장의 한계, 광장의 모순은 이처럼 젠더 회로를 거치면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영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차별과 배제를 사회적으로 구조화하는 광장의 통치술이 젠더 회로를 거치면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사회적 타자‘들’ 내부의 차이가 지워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통합술을 해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젠더 회로를 거치고 있지만 표면에서는 혐오와 같은 차별화 감정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광장에 대한 열망을 가시화하거나 다른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표면에서는 감정을, 그 이면의 작동인 젠더 회로를 해부하는 비판적인 시선이 요청된다고 보는 것입니다.¹⁴

광장이 비가시화 한 지점을 가시화하고 광장이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소영현의 방법론은 젠더링(Gendering)을 통한 광장의 맵핑(Mapping)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흔히 광장은 요철이 없는 평탄면으로 상상되고는 한다. 그러나 소영현에 따르면 광장은 광장을 횡단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밀어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합 지형에 가깝다. 이에 대하여 광장의 통치술은 지형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힘의 역동성을 소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존재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광장의 통치술이 은폐한 지점

14 소영현, 위의 인터뷰.

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이름으로 회수되지 않는 내적 위계화를 가시화하고 폭로하는 ‘광장’ ‘들’에 대한 시야”¹⁵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광장의 ‘사이’에서 흐르는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지형의 다양한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터인데, 감정의 향방을 따라가면서 감정이 흘러가고 고이고 융기하는 지점마다 생겨나는 광장의 새로운 지형들을 탐색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일에 비견될 수도 있을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중 광장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5 광장에서 바리케이트를 치우라!

‘광장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광장에는 바리케이트가 없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일련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 누군가에게 광장에서의 경험은 광장 내부에 설치된 수많은 바리케이트에 가로막혀 제자리에서 멈추거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을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러한 바리케이트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태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바리케이트를 무화하기 위한 전술이나 전략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바리케이트가 없는 광장은 실정성이 없으며 상상의 차원에서나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광장 곳곳에 설치된 바리케이트가 분할과 차별의 정치를 행하고 있다는 판단은 광장에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 상황이 이러하데 광장의 탈구축과 재구축은 어떻게 가능한가?

감정연구에 대한 소영현의 모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사이’에서 진동하는 운동성이라면, 감정을 통해 광장에서 우리가 포착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곳의 체제를 중지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자리가 광장이라면, 광장을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부의 집합감정입니다.

15 소영현, 위의 인터뷰.

그런데 집합감정은 균질적인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지향도 다른 힘들의 충돌이자 공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장 내부에 서로 다른 집합감정의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 사이에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권력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광장 자체의 지향이나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광장에 대한 관심은 내부의 서로 다른 힘들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¹⁶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진 집합감정이 충돌할 때 권력의 위계에 따라 바리케이트가 쳐진다. 바리케이트는 권력이 타자화한 이들의 광장 진입을 막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감정들의 향방을 살피는 이유는 바리케이트가 누구의 앞에 세워지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케이트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이다. 바리케이트를 걷으라!

바리케이트를 걷으라! ‘죽이지 말라’, ‘힘오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이 아닌, 연대와 접속의 방식으로 출현하는 다중의 광장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감정의 흐름을 쫓아온 소영현의 작업을 다중의 광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이해한다.

16 소영현, 위의 인터뷰.